

# 한강 '소년이 온다' 폴란드서 연극으로 재탄생

스타리극장 6월 시범공연 10월 무대 연출가 "소설 읽고 감명 자료 요청" 5·18재단, 사진·동영상 등 제공 남산예술센터도 '소년이 온다' 작품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연극으로 옮긴 폴란드 연극 '소년이 온다' 공연 모습. ©마그다 휴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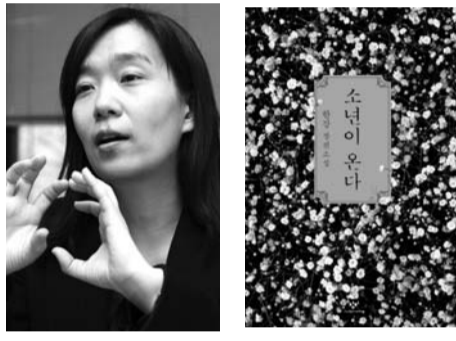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폴란드에서 연극 무대로 재탄생했다.

폴란드 스타리 국립극장이 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연극 '소년이 온다'를 제작했다. 유럽권 최초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가 아닌 연극 무대에 5·18을 담아낸 이번 작품은 폴란드 스타리 국립극장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 감독이 연출했으며 지난달 중순 4번에 걸쳐 시범공연 무대를 선보였다.

마르친 감독은 광주를 물론 우리나라를 한 번도 들른 적 없었으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번 작품을 기획하게 됐다. 하지만 유럽 어디에서도 5·18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기초 자료 수집에 난항을 겪었고, 마지막으로 5·18기념재단에 연락을 취하게 됐다. 재단 측은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진·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사진 저작권자와 직접 연결해 사진 사용 허가를 도와주기도 했다.

원작 소설 '소년이 온다'는 광주 출신 작가이자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6번째 장편소설로, 지난 2017년 이탈리아 문학상 '말라파르테 상'을 수상했다.

소설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운 중학생 동호와 그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린다. 중학교 3학년인 동호는 친구 정대가 총격에 죽음을 맞자,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시신들을 수습하며 그들의 혼을 위로하던 중, 정대의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그날 동호는 엄마와 형, 누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청에 남아 저항하던 중 죽음을 맞는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은 이후 경찰에 연행, 고문을 받고 살아 있음을 고통으로 여기기 싫을 이어간다.



한강 작가

마르친 감독이 재단 측에 보내 온 이메일에 따르면 이번 연극은 원작에 등장하는 일부 장면들을 무대에 재현하는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특히 사진·동영상 자료에 나타난 80년 당시 광주의 모습을 무대에 그대로 옮긴 듯한 연출에 집중했다. 마르친 감독은 이메일에서 "당시 계엄군의 만행보다는 시민들의 환경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며 "폴란드 내에서는 지역·문화적 차이로 관객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와 달리 관객들이 크게 호평해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극은 마치 깨진 도자기의 금을 금은 등으로 이어 붙이는 공정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 국제연대부 유인례 부장은



연극 '소년이 온다' 중 80년 당시 도청 상무관에 있던 관들을 묘사한 장면. ©마그다 휴켈

"5·18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에 이번 작품이 광주에서 공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오는 10월 폴란드 스타리 국립극장에서 공식 초연 무대를 갖는다. 한편 남산예술센터도 오는 11월 서울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소재로 한 연극 '휴먼 푸가(Human Fuga)'를 공연한다. 공연장작집단 '뫼디'의 배요섭 연출가

가 참여한 이 작품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바탕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푸가(Fuga)' 음악과 함께 풀어내는 퍼포먼스극이다. 5·18민주화운동과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1970-83년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1965년 인도네시아의 '반공대학살' 등 죽음과 사회적 고통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과 설치미술작품들을 무대에 함께 올리기도 한다. /유연재 기자 yjiyou@kwangju.co.kr



2017년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북콘서트 장면.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 문화전당, 중앙아시아 3개국 북 콘서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이하 ACC)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사무국장 김성인)과 함께 오는 16일 타지키스탄을 시작으로, 18일 키르기스스탄, 20일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CC는 지난 2009년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아시아스토리텔링위원회'를 구성해 한-중앙아 국제문화협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신화·서사 등 실크로드의 이야기자원을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공동 창작·제작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 각 작가가 이야기를 쓰고, 한국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려 제작한 ACC 아시아 이야기그림책 5종이 탄생했으며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지난해 12월 한국어, 러시아어, 중앙아 현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출판·유통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자연과 생태 기초 공동체적 삶 지향

광주 출신 노유섭 시인 '말머리 곡선의 기류' 펴내

"거대한 균중이다/ 바람 따라 소리쳐 그대를 부르지만/ 포효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어깨 기대고 다만 푸르디푸른 매스게임으로./ 은빛, 잿빛, 금빛 매스게임으로 나아가는 숲./ 그 춤사위 한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 그 자리를 맡게 하고/ 발 아래 짙뽀를, 온갖 게를 키운다..." ('순천만 갈대숲' 중에서)

광주 출신 노유섭 시인이 10번째 시집 '말머리 곡선의 기류' (시문학사)를 펴냈다.

모두 75편이 수록된 시집에는 '강아지풀', '낙화', '장미원에서', '숲으로 가는 길', '백일홍' 등 자연과 생태에 바탕을 둔 시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사랑 이야기', '허무의 숲', '조용한 화음' 등 일상에서 느끼는 감성을 서정적인 시어로 형상화한 작품도 있다.

그의 시를 가로지르는 주제는 '생명의식'이다. 정신재 시인의 '개체의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관계 설정의 새로움을 통하여 공동체적 삶의 질의 승화를 모색하였다'는 평대로 작품은 모든 개체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데 있다.

작품 기저에 깔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물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사유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오늘의 사회에 던지는 잠언과도 같다. 시인은 어느 한 곳이 탈이 나면 하나의 지구생명체인 우리 또한 연속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시로 풀어낸다.

한편 노 시인은 서울대 국어과를 졸업했으며 '우리문학'으로 시가, '한글문학'으로 소설이 당선돼 등단했다. '풀잎은 살아서', '유리바다에 내리는 눈나라', '햇빛 피리소리에 어깨 걸고' 등의 시집을 펴냈으며 한국현대시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린소극장 18~20일 '아름다웠던 시간' 공연

극단 예린소극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오후 7시 30분 예린소극장에서 연극 '아름다웠던 시간'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극은 머레이 시스겔의 연극 작품 '타이피스트'를 각색한 무대로 펼쳐진다. 산업화 시대 인간 소외에 중점을 둔 부조리극인 원작과 달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성공, 사랑 등을 주제로 꾸민 감성 연극 무대를 선보인다.

아침차게 미래의 성공을 호언하는 장팔복과 막연한 사랑을 꿈꾸면서도 희망 없이 하루

를 사는 전소녀. 20대에 직장 동료로 만나 평생 같은 사무실에서 지내며 감성싸움과 연민 같은 사랑을 반복하던 이들이 어느덧 반백의 나이가 돼 회사를 퇴직하는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고, 서로에게 못 다한 말을 전한다.

극단 예린 대표 윤여송씨가 각색·연출을 맡았으며, 장팔복 역에 정이형 배우, 전소녀 역에 강원미 배우가 출연한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223-2690. 010-4123-6080. /유연재 기자 yjiyou@



연극 '아름다웠던 시간' 공연 모습.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p><b>토산철학원</b></p> <p>북구 두암동 예린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b>학산운명감정원</b></p> <p>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p> <p>원장 전홍석 ☎ 010-8003-9000</p>	<p><b>태극익스프레스</b></p>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본위</p> <p>☎062)222-2424, 011-664-2202</p>	<p><b>양지공인증개사</b></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p> <p>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p><b>무크광주세정점</b></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p> <p>☎062)370-9258</p>	<p><b>고흥나루터</b></p>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p><b>초대화랑</b></p> <p>동구 중앙로 196빌딩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p>	<p><b>그집고기</b></p>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빌딩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p> <p>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p><b>으뜸공인증개사</b></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p><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b>청학철학원</b></p>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p><b>진주공방</b></p> <p>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상품만들기</p> <p>☎010-3906-1718</p>
<p><b>금강버티컬</b></p>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틀스크린, 전동틀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틀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p><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b>석당화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b>신신예술의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b>국수나무용봉점</b></p> <p>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p><b>기담철학원</b></p> <p>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p> <p>☎062)432-1324</p>